

신성이엔지, 주요 뉴스 및 공시(2020년 1월 ~ 2020년 2월)

신성이엔지의 2020년 1월부터 2월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과 공시 내용을 설명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 주요 계약 체결 공시

: 2020년을 시작하며, 2월까지 총 2건의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하였습니다. 2건의 계약은 모두 신성이엔지의 주력 사업인 클린환경 사업부문(CE사업부문)이 담당하고 있는 '클린룸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었으며, 총 공사금액은 230.7억원(부가세 포함) 규모였습니다. 2019년 12월 삼성물산(주)로부터 142억원의 클린룸 설치공사 수주를 공시한 이후, 매달 클린룸과 관련한 수주 및 공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2020. 01. 06.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삼성물산(주)와 2020년 1월 6일 클린룸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치 지역은 충남 아산시이며, 총 계약금액은 51.7억원, 계약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 2020. 02. 24.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삼성물산(주)와 2020년 2월 24일 클린룸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치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이며, 총 계약금액은 179억원,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 실적 공시(2020.02.13.)

: 신성이엔지는 2020년 2월 1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은 직전사업연도 대비 6.2%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직전사업연도 대비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511억원 및 97억원이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산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및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3년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였습니다.

■ 기타 공시(2020.01.23.)

: 신성이엔지는 기존 KDB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제31회차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만기일에 전액 상환하였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본건 사모사채는 2017년 3월 15일에 발행된 건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환된 주식은 없습니다.

■ 주요 기사

: 2020년 1월부터 2월까지 신성이엔지는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규 출시된 퓨어루미의 누적 판매 5,000대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비롯하여, 고효율 특화된 태양광제품으로 시장 경쟁력을 키운다는 내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 2020.01.14. 신성이엔지, 베트남업체와 손잡고 북미시장 공략강화

신성이엔지는 베트남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비나솔라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모듈 생산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향후에 북미를 필두로 하여, 동남아, 유럽 및 남미 등으로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나솔라는 태양전지 연간 8GW, 태양광 모듈 연간 3GW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고효율 제품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신성이엔지는 비나솔라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현재의 PERC 기술을 뛰어넘는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요 증권사 REPORT

2020년 1월 28일 및 2020년 1월 29일 이틀에 걸쳐, IBK투자증권 및 DB금융투자에서 신성이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IBK투자증권 함형도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의 확대를 전망하면서, 특히 미국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주택용 시장에서, 신성이엔지의 고효율 제품인 Power XT 등을 통해 실적개선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DB금융투자 구성진 연구원이 작성한 '심기일전'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성이엔지는 클린룸과 태양광 사업 전문기업으로서, RE사업부의 안정적 장기 계약을 통한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주력사업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의 투자 재개에 따른 CE사업부의 매출 증가와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2020년은 새로운 반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 동안에 있었던 주요 소식과 공시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신성이엔지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